

‘에바다학교 문제’의 배경 및 전개과정과 그 특수교육적 함의*

유종열**

창원천광학교 교사

김병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에바다학교 문제’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영향 등을 통해 그 특수교육적 시사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에바다학교 문제’의 맥락과 실상을 이해 할 수 있는 문헌연구와 당시 ‘에바다학교 문제’에 참여했거나 사건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에바다학교 문제’는 1996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6월 7일까지 약 7년 동안 에바다학교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비리 중의 하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에바다학교 문제’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과 장애인계의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시설, 에바다학교, 장애인 운동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수정하여 제출하였음.

** 교신저자(skh666@chol.com)

I.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최근 ‘도가니’ 라는 영화를 통해 특정 사립특수학교 운영의 문제점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까지 이들 사립특수학교 및 사립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들은 암암리에 금기시되어오던 영역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꽤 민감하고 불편한 일에 해당되었다. 이를테면, “장애인시설이나 특수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숨겨 온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도가니’ 라는 영화가 일으킨 사회적 반향은 엄청나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왜 이제까지 덮어 두었던 말인가?” 라며 분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전국의 장애인시설들에게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당시의 판결에 대한 법률해석이 적절했는지 재해석이 이루어졌고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학교관리자들에게는 해임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가운데 저질러졌던 각종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동안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바다학교 문제’ 는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에바다학교는 영화에 나오는 학교와 비슷한 역사와 운영방식을 갖고 있던 청각장애 사립특수학교이고, 재단측의 비리에 맞서 7년 동안 치열한 싸움 끝에 이미 7년 전에 비리재단을 퇴출시키고 민주재단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에바다학교 문제’ 는 1996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6월 7일까지 7년 동안 에바다학교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비리사건 중의 하나였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에바다학교 문제’ 는 우리나라 사립수용시설위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옹호하는 측과 시설을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전개되다가 결국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이 퇴출당하고 합법적 이사회가 재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에바다학교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에바다학교 문제’ 의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셋째, ‘에바다학교 문제’ 가 보여주는 특수교육적 함의를 밝힌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적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에바다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수집한 자료는 사건관련연구논문 및 단행본, 언론보도자료, 소송판결문, 농성기간동안 발행된 문건 및 홍보물 등이었다.

관련논문 및 단행본은 우리나라 특수교육발전사와 복지정책의 발전과 관련하여 강세윤, 김윤태(2006), 김동규(2004), 김영찬(2010), 김정권(1974), 김병하(1995), 양재진(2008), 이상춘(2006), 이석진(2005), 조홍식(2006), 최건규(2000), 최원규(1996) 등의 논문 및 단행본 자료를 수집하였고, 장애운동과 시설문제에 관련하여 김도현(2007), 김상호(1994), 성우제(1999), 유동철(2006), 팽현모(2000), 현삼원(2009) 등의 논문을, 그리고 장애인선교와 관련하여 백락준(1973), 이영빈(2006), 정형석(2003) 등의 연구를 토대로 에바다학교의 설립과 발달 과정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언론보도자료로는 신문기사(장애인복지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서울경제, 경인일보, 평택시민신문, 인천일보, 내일신문, 시민의 신문 등)와 정기간행물(교육희망, 함께걸음, 월간복지동향, 월간참여사회, 한겨레21 등)의 에바다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에서는 검색어 ‘에바다’, ‘에바다 사태’, ‘에바다학교’, ‘해아래집’, ‘시설비리’ 등으로 검색되는 뉴스나 보도자료와 장애인단체의 카페 또는 홈페이지(장애학생지원센터, 다큐-인, 인권운동사랑방, 용한생각, 감사원 자료실, 민변자료실, PD 수첩, 오마이뉴스, 에이블 뉴스, 한국 DPI, 노들야학,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선교자료실, 한국감리교사 등등) 등에서 에바다 관련 뉴스나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당시 TV의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상물들을 수집하였는데, MBC의 PD 수첩과 뉴스에서의 방영본, 인권영화제에 출품된 ‘끝없는 싸움 - 에바다’ 을 수집하였다.

경기도 S지방법원 P지원에서 있었던 에바다 관련 소송의 판결문 13종을 수집하였고, 당시에 작성된 농성일지, 회의록, 각종 자료집(에바다 인권캠프 자료집, 에바다 1,000일 사기(史記),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등)과 홍보물, 팸플렛(에바다콘서트, 에바다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찾집, 일일호프 등) 등을 수집하였다.

2) 심층면담실시

‘에바다학교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에바다학교 문제’에 참여했거나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경험과 그에 대한 느낌과 주변사람들의 반응 등을 생생하게 기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보의 제공자는 권○○, 이○○, 김○○ 3명이었다.

① 권○○은 ‘에바다학교 문제’가 진행될 당시에 에바다학교 교사로서 ‘에바다학교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를 정보제공자로 선정한 이유는 가장 가까이에서 ‘에바다학교 문제’를 지켜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에바다학교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에바다학교에 근무해 왔고 사건이 진행되고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해임과 파면, 복직을 겪는 등 에바다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요즘에도 에바다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② 이○○는 당시 관선이사장으로 파견되어 ‘에바다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기관과 구재단, 농성교사들과 학생들 등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따라서 당시 행정기관들과 국가기관들은 ‘에바다학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었는지를 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정보제공자로 선정하였다.

③ 김○○는 당시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의장으로서 ‘에바다학교 문제’에 참여했으며 에바다 문제를 전국의 장애인단체 및 종교단체, 민중운동단체, 학생운동단체, 인권운동 단체 등에 알리면서 연대투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개발과 문건 및 홍보물 작성 등을 전담함으로써 에바다 연대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심층면담을 하기 전에 연구자는 먼저 연구목적을 분명히 밝혔으며,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 완성되면 면담참여자에게 보여주고 면담참여자가 보고 난 후 의견을 제기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면담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대화도중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는 면담이 끝난 후 바로 라벨을 부착하여 여러 테이프들 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면담을 마친 후 사투리나 문법적 실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verbatim)하였다. 전사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면담내용을 들으며 녹취록과 비교 대조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하여 면담참여자에게도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하게 한 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Ⅱ. ‘에바다학교’의 설립과 발전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은 선성장-후분배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복지지출은 최대한 억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는 민간독지가들의 희생과 동정심, 외국의 선교단체들에 의한 원조물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 소외계층들에 대한 구호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개신교 선교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로 전쟁고아나 난민들을 수용보호 하였는데 원생들이 성인이 되어 원을 떠나게 되자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점차 장애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의 구호물자는 중단되었고 또한 선교단체들도 본국으로 귀국하게 됨으로써 복지시설들은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이 담당하게 된다.

에바다학교는 196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보육원’을 1970년에 ‘에바다농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농아학생들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농아인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였던 맥신 스트로브릿지(Maxine Strobridge)는 1974년부터 에바다농아원을 맡아 헌신적으로 선교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당시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에바다학교 전 이사장 최○○목사에게 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된다.

1982년 최○○목사는 맥신 선교사가 기증한 6,000여평의 땅과 전국 에바다교회에서 출연한 2000만원, 기타 기부금 4,000여만 원으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농아복지회’로 바꾸고 지금의 현 에바다학교 위치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86년 청각장애인 특수교육시설인 에바다학교가 설립되었고, 이어 1995년에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면서 법인명칭도 ‘에바다복지회’로 바뀌어 오늘날과 같은 에바다복지회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Ⅲ. ‘에바다학교 문제’의 전개과정

‘에바다학교 문제’의 발단은 1996년 11월 26일,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에바다농아원 학생들의 농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때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농성이 있기 전에 이미 다섯 번의 농성이 있었으며 여섯 번째 농성이 비로소 폭로된 것이었다.

문제의 농성이 시작되자 구재단 사람들의 범죄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비리의 핵심인사들이 구속되면서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구재단 측에서는 여론이 잠잠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농성중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보복성 징계와 농아원생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만약, 사건초기에 학교시설 운영상의 몇몇 요구들만 들어주는 선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더라면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재단 측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배후조종한 것으로 몰아세웠고 유관기관에서도 구재단 측의 이러한 입장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구재단 측을 두둔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농성은 장기화되기 시작했고 ‘대통령과의 대화’ 에까지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에바다학교 문제’ 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측과 시설의 입장을 정책적으로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띄게 됨으로써 이후 7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7년 동안 지속된 ‘에바다학교 문제’ 의 전개과정을 비리의 폭로단계, 관선이사장 임명단계, 합법적 민주이사진 구성단계, 불법점거 퇴출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① 비리폭로단계(1996. 11 ~ 1999. 5) : 농성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재단의 비리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했다. 이러한 농성은 곧바로 구재단의 무자비한 폭력에 부딪혔으며 이러한 구재단의 폭력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하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② 관선이사장 임명단계(1997. 10 ~ 2000. 3) : 이는 관선이사장의 파견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서 이사장의 권한이 실로 막강하므로 이사장만 바뀌면 그 법인의 운영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대회의 측에서는 현 이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선이사장의 선임을 요구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 국회의원이 관선이사장으로 파견되어 온 이후로는 ‘에바다학교 문제’ 가 마치 해결이나 된 것처럼 고무되었다. 그러나 이○○ 신임이사장은 법인의 정관규정들과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쳐버렸다.

③ 합법적 민주이사진 구성단계(2000. 4 ~ 2001. 10) :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들을 바꾸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최○○ 전농아원장 계열의 이사들과 양○○ 농아원장직무대리 계열의 이사들 간에 갈등을 틈타 민주이사를 등록시켜 이사회의 구성비율을 바꾸었다.

④ 불법점거 퇴출단계(2001. 10 ~ 2003. 6) : 합법적인 이사진이 구성되었지만 합법적 이사들과 학교장 등은 에바다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재단의 사주를 받

은 농아원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교문을 폐쇄하고 어느 누구도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점거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불법점거’를 허용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년 반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은 이들을 몰아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⑤ 문제의 마무리와 그 이후 (2003. 6 ~) : 에바다복지회를 정상화시킨 7년여의 싸움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비로소 투명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의 갈등의 상처를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구재단측과 연계되어 있었던 직원과 교사들을 화해와 용서로서 치유하고 새로운 학교운영에 동참시켰다. 이후 불법과 비리의 상징이었던 에바다학교를 민주화의 상징으로 변모시켰고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IV. ‘에바다학교 문제’의 특수교육적 시사

1. ‘에바다학교 문제’의 발생요인과 장기화요인

1) 공적(公的)의식의 결여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익재단의 자산이 당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사학재단뿐만 아니라 사립복지재단들, 대형교회들의 세습 문제가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공적재산들이 사적소유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에바다 복지회의 구재단 사람들도 이러한 풍토에 따라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재단운영에 대한 기득권과 소유권만을 주장하고 함부로 재단을 운영해 오다가 마침내 ‘에바다학교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2) 시설운영의 폐쇄성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운영을 국가적인 책무성과 시민적인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운영자의 인격만을 믿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기는 형국이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미하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에바다학교는 ‘은둔의 학교’라고 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베일에 가려진 존재였다. 특히, 수화를 사용해야하는 청각장애학교였고 또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수화를 할 줄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 때문에 더욱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최○○ 전농아원장은 ‘청각

장애인과 관계되는 일은 소문이 나지 않아 비밀보장이 될 수 있어 좋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학교명패도 없이 지내다가 사태가 본격화될 즈음에서야 '에바다학교' 라는 명패를 붙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학교가 알려질 수 있는 행사나 학교방문(자원봉사, 후원회 등), 언론의 취재활동 등을 극히 꺼려하였다고 한다. 유일하게 학교방문이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미군부대원들이었는데 미군부대원들은 이들의 막강한 후원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이 새어나갈일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세상과 격리된 채, 에바다학교 안에서는 구재단측의 가족친지들이 주요 기관의 요직을 나누어가지고 족벌체제를 형성하는가 하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일삼았던 것이다.

3) 유관기관들의 미온적이고 양비론적인 태도

'에바다학교 문제' 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해결이 늦추어진 것은 관계기관(관청)들의 미온적이고 양비론적인 태도가 또한 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 관공서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구재단과 관공서 등의 지역토착세력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농아원 총무를 역임했던 권▽▽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농아원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돈봉투를 만들어 돌렸다면 유착관계를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토착세력과 유착되었다' 라는 것은 모든 지역 사회 관공서들이 위와 같은 공금횡령 사건 등에 모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재단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기관장들과 유대를 가지며 틈나는 대로 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고 그 속에서 보호받으며 공조적 맥락을 같이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상부상조하는 지역사회에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서 '에바다학교 문제' 의 경우 P시청에서는 구재단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만 줄곧 사태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즉, '일부 급진적인 교사들이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고 일부 친분있는 언론인들을 끌어들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며 오히려 연대회의측을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갔다.

이처럼 에바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권력기관들이 취했던 공통된 입장은 양비론적 시각이었다. 양비론(兩非論)이란 서로 충돌하는 두 의견이 모두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대화로 풀어라. 문제가 있으면 학교로 복귀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 밖에서 농성을 하는가?' 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책임을,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연대회의 측에게 돌리곤 했다. 그러나 구재단과 타협한다는 것은 온갖 비리의 주범이고, 또한 자신들의 소유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농아원 학생들을 행동대원으로 앞세워 무자비한 폭력을 사주하는 폭력집단에게 또다시 재단의 운영을 맡기고 학생들의 교육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대회의 측에서는 절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4) 정치권의 영향

‘에바다학교문제’의 문제해결을 장기화시킨 또 하나의 원인은 당시 김대중 정권인 DJT연합정부의 정치적 지분싸움이었다. 김대중정부는 자민련과의 공조를 이룬 연합정권이였다. 당시에 P시장과 P시의 국회의원은 자민련소속이었고, 자민련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P을 지역구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P을 교두보삼아 정치기반을 넓혀가던 중이었다. 그러는 중에 에바다문제가 불거졌고 에바다문제는 지역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P시청과 구재단과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만약, P시가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민련으로서는 모처럼 잡은 교두보를 잃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민련으로서는 ‘에바다학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자민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약속¹⁾도 지켜지지 않는 기약없는 처절한 투쟁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전개되었던 것이다.

5) 장애인계의 역량부족

‘에바다학교 문제’ 장기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부족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90%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보수적 기반을 갖고 있던 P시장 김○○는 외부에서 밀고 들어온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 일부 대학생들, 그리고 존재감도 없는 몇몇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보수성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절대적 지지자였고 지역사회 카르텔의 일원인 구재단측을 퇴출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구재단에 맞서는 연대회의 측의 지역적 기반이 구재단을 능가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시당했을까? 결국은 구재단측의 정치력이 더 썩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장애인들의 편들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대회의 측에서는 이름있는 명망가들을 이사로 영입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장애인야학의 교장으로서는 장애인계에서는 대부로 불리고 있는 인사였고, 박○○씨는 국제 엠네스트에서 석방운동을 벌일 정도로 인권운동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사였다. 그리고 지역의 민권운동과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 의사, 목사, 정치인 등의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영입함으로써 관공서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것이다.

1)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외

2. '에바다학교 문제'의 해결요인

1) 내부 주체들의 결속과 끊임없는 노력

'에바다학교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미완의 장애인 시설비리사건 즉,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양지마을 사건 등과 달리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설내의 내부 주체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비리재단에 맞섰기 때문이었다. 내부주체들이 장기농성을 하면서 투쟁의 주축이 되었고, 그들을 지원하는 외부세력이 결합하여 공동으로 구재단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부주체세력들의 포기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과 단단한 결속력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맑게 생활하는 편안한 모습 등은 '해아래집' (농성장)을 방문하는 외부세력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는 동정심을 일으키는데 충분했다.

2) 도덕적 차별성

'에바다학교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재단과의 뚜렷한 도덕적 차별성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도덕적 우위란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비폭력노선을 취했다는 점, 공금횡령과 비민주적인 독단에 맞서 투명성과 따듯한 공동체의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농성이 7년 동안이나 지속되자 조급해지는 것은 오히려 구재단측이었다. 탐욕과 소유욕에만 집착하는 구재단 측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깡패집단처럼 변해갔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방식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변명할 때에만 사용되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을라 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둘렀다. 농성을 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문을 공시하려는 집달관도, 시위를 막으려고 출동한 경찰관도, 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이웃주민들 까지도 폭행하였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농아학생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농아학생들을 사주하여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학생들과 자기들을 가르치던 스승들까지 폭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연대회의 측 사람들은 철저히 비폭력으로 맞섰다.

우리는 애들에게 '때리면 맞아라, 절대 대응하지 말아라, 너희가 뜻이 옳았던 만큼 행동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애들 말로 반대선생(수화로 재단측 교사를 가리킴)이라고 그러는데, 재단측 선생들 있죠? 애들이 선생님보고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받고 그러다고 '해아래집'에 오면 울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인사를 안 받으면 오늘은 더 속이고, 내일은 더 속

여러, 언젠가는 자기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인사를 받을 거다, 그리고 재단측 애들이 때리면 절대 대응하지 마라, 매일 맞으면 계속 때리진 못할 거다, 며칠만 고생해라, 뜻도 옳은 만큼 행동도 바로해라, 학교에 청소당번이 아니라도 너희가 먼저 쓸고 닦고 해라’ 라고 거의 세뇌시키 다시피 했어요.

하루는 ‘해아래집’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애들이 오다가 (농아원생들에게)동네에서 맞았나 봐요, 다 큰 놈들이 눈이 벌겍게 돼서 웃으면서 오드라고요, ‘오늘 삼거리에서 맞았는데 같이 안 때리고 참고 왔다’고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애들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권○○: 2011, 1,13)

또한 권○○의 별명은 ‘오히려 잘됐다 선생님’이었다. 자신들이 어그러지고 깨질수록 오히려 잘됐다고 박수치면서 너털웃음을 짓곤 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해아래집’이 침탈당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도, 법원의 집달관과 함께 폭행당했을 때에도, 불법점거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학교에 진입하다가 두들겨 맞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잘됐다’며 환영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잘못도 없고 합법적인 우리들을 이렇게 망가트려 놓았으니 구재단측의 잘못이 더욱 만천하에 들어나게 될 것이고 저들은 더욱 궁지에 몰릴테니 오히려 잘된 것이다’라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주위사람들을 위로하곤 했다.

3) 외부적 요인

‘에바다학교 문제’가 진행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소득수준 및 인권의식의 성장,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민주화의식의 성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에바다학교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3. ‘에바다학교 문제’의 특수교육적 시사

1)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에바다학교 문제’의 본질은 패러다임의 충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을 일으킨 패러다임의 실체는 ‘시혜의식’과 ‘당사자주의’로 요약된다. 시혜의식(施惠意識)은 구재단측에서 갖고 있었던 신념체계로서 ‘우리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있다.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어려운 시절에 우리들이 사재를 털어 이 시설을 설립했으니 시설은 우리 소유이고 자율적·임

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를 7년여의 농성기간동안 여실히 드러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주의의 입장은 새로운 이사회와 연대회의 측에서 갖고 있었던 신념 체계로서 ‘장애인도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써 장애인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충돌과정에서 구재단이 퇴출당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재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과 주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입안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철저히 이러한 당사자주의에 근거한 당사자들의 주도로 입안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권과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공론화/대중화

심한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등한 인권과 교육권을 주장할 수 있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권은 무시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효율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문제를 이러한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제껏 장애인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불쌍함을 근간으로 한 시혜와 동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또 이들을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재활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는 지역사회와 장애인 당사자간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수평적 소통이기보다는 일방적 소통을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한 불편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데 반하여 사랑, 동정, 시혜라는 관점은 일회성 행사나 사안별 문제해결중심이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적 차원에서 공론화된 사례로서 2001년에 있었던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운동을 들 수 있다.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70대 노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보상문제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에바다학교 문제’ 가 불거지면서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교육권의 문제가 또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에바다학교 문제’ 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시설내의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확보를 위한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때마침 소개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운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2004년 12월에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기존법률의 개정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고, 2008년 4월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등이 개최되는 등 시설내의 생활자에 대한 인권과 교육권의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3) 장애인 비리시설에 대한 모범적 개편 사례

어느 누구도 사립재단의 자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은 자율성을 넘어 대물림까지 하려는 사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에바다의 경우에도 사유화된 시설에서 이사장이었던 최○○과 농아원장이었던 최○○ 남매는 친인척을 요직에 배치시켰으며 그러다보니 애초부터 투명한 운영은 불가능했다. 국고보조금이나 국내외의 후원금은 원생들을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최씨일가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그들은 원생들의 이중장부 조작, 유명직원의 고용, 심지어 농아가 아닌 원생을 강제로 수용하는 등등의 비리를 자행하고 있었다.

이제껏 우리사회에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의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가 있어왔다. 하지만 비리를 저질렀던 장본인들은 구속되었다가도 곧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사회적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바다학교 문제’의 해법은 시설비리의 모범적인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사회의 개편을 통한 법인지배구조의 변경인 것이다.

이사회구성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지만 ‘에바다학교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구재단 측에서 학교를 불법점거하고 있어 합법적인 이사진들은 학교에 진입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력을 앞세워 3차에 걸친 진입투쟁을 치열하게 벌인 후에야 겨우 에바다학교에 진입할 수 있었다. 비록 구재단 측의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폭력점거로 인해 이사회의 개편만으로는 완전히 ‘에바다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듯 ‘에바다학교 문제’는 이사회의 개편이 법인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장애인운동의 활성화에 기여

‘에바다학교 문제’는 유례가 없는 7년 동안의 농성을 지켜냄으로써 결국은 승리를 일구었지만 내부주체들 혼자서 농성을 진행시킨 것은 아니었다. 장애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 지역사회 사회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 등²⁾이 실질적인 공동의 책임 주체로 참여하여 일구어낸

2)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계 인권·시민사회단체 : 경기복지시민연대/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기독교사회시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큐인/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

전국의 양심세력 공동의 승리였다. 장애인운동단체들은 이들 운동단체들과 교류하고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운동노하우를 전수받고 또한 장애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관심을 그들에게 전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장애인운동사에서 1990년대 중·후반 시기 즉, 에바다농성이 진행되던 시기는 운동전망의 부재와 조직원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장애인운동조직은 와해되고 운동원들은 흩어져서 주도적인 운동세력이 부재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에바다학교 문제’는 거의 유일한 현장 투쟁이었기 때문에 이 농성을 계기로 장애인운동의 흩어진 운동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을 복원하는 등 장애인운동의 맥을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도현, 2008). 이 시기에 결합한 장애인활동가들 중에는 9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장애인으로서 자아의식이 싹트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찾기운동의 주체로서 성장한 것이다.

에바다농성 승리이후 장애인계에서는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 적지 않게 고무되었으며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운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에바다농성 이후 장애인계의 권익운동은 제도권을 넘어서서 비합법적이고 파격적이며 매우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운동사회는 물론 전체사회에 일정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1980년대 말에 본격화되어 1990년대 중반 단절의 위기까지 경험했던 장애인운동은, 2000년 이후 매우 파격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복원을 알렸는데 그 한가운데에 에바다사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교육민주공동체 구성

에바다학교는 지난 1986년에 개교된 이래 현재까지 2개의 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민주화이전과 이후가 그것이다. 1996년 농성이 시작되고 구재단이 완전히 축출되는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민주화 이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는 구재단 측의 비리와 횡포로 점철된 시기로서 한국의 사회복지 혹은 장애인복지, 사립학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압축하고 있던 시기였다. 반면에 2003년 6월 이후부터는 민주화 이후의 시대로서 구재단이 물러가고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정상화를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에바다학교의 문화를 민주화 이전시기와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복지연대/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장애인연맹/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주평화통일협의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바다문제해결과장애인중연대를위한제6기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농아인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2002. 3. 6. 수사촉구 성명서)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에바다학교 문제’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과 장애인계의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에바다학교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에바다학교 문제’의 전개과정, 그리고 ‘에바다학교 문제’가 함의하는 특수교육적 시사점을 구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선성장-후분배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심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은 외국의 선교사들과 일부 독지가들의 동정과 구호에 의존하였다.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자 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최○○은 법인의 자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다루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일삼다가 마침내 ‘에바다학교 문제’를 야기시켰음을 살펴보았다.

농성이 시작되자 구재단 사람들의 범죄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비리의 핵심 인사들이 구속되면서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하였지만 구재단 측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배후조종한 것으로 몰아세웠고 유관기관에서도 구재단측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구재단 측을 두둔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농성은 장기화되었고,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측과 시설의 입장을 정책적으로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띄게 됨으로써 이후 7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게 되었다.

‘에바다학교 문제’의 발생배경과 해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특수교육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장애인정책 및 복지정책이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환기시켜 주었다. ‘에바다학교 문제’는 ‘시설 내에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수요자 중심의 해법으로 마무리 되면서 이러한 수요자중심 접근은 이후의 장애인교육과 장애인정책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시설 속에 갇혀있던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을 비롯한 인권적 차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셋째, 비리시설에 대한 모범적 개편 사례를 남겼다. 이사회를 개편하여 법인의 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시설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장애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7년여에 걸친 농성은 흠어졌던 장애인 활동가들을 결집시키고 조직을 복원·구축해가는 과정이 되었다.

다섯째, 에바다학교를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변모시켰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 일방적이고 획일화되었던 종래의 학교문화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 언

본 연구는 특정한 사립특수학교문제에 한정될 뿐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립특수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구재단 측의 입장보다는 연대회의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연구자가 구재단 측 인사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다’며 인터뷰를 기피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들은 대부분 연대회의 측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중에도 본 연구는 ‘에바다학교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립특수학교의 위상과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에바다학교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세윤, 김운태 (2006). 의료재활. 한국재활협회(편).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99-138. 서울: 양서원.
- 곽정란 (2003).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수교육학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곽정란, 김병하 (2004).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49-263.
- 김도현 (2007). **차별에 저항하라**. 서울: 박종철출판사.
- 김도현 (2006). 한국사회 장애인운동의 역사평가 및 방향성과 그 과제. **정태수 열사 4주기 추모토론회자료집**, 4-36.
- 김동규 (200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통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15, 한국행정사학회.
- 김명연 (2008).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4-18.
- 김병하 (2007). **대구특수교육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 (2011). **한국특수교육론**.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영찬 (2010). **왜 소득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서울: 황금고래.
- 김정권 외 (1988). **영광학원 50년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정열 외 (2002).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창엽 외 (2002).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서울: (주)도서출판 삼인.
- 권오일 (2005). 장애인 시설비리가 특수교육과 장애인권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두뇌한국 21특수교육 교육·연구단. **월요세미나 79회 자료집**.
- 권오일 (1997). 에바다사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걸음 1997년 3월호**, 12-13.
- 권오일 (1999). 농성 1000일 맞는 ‘에바다사태’. **진보정치 창간준비-5호**, 1999. 8. 16.
- 박래균 (200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단상. **진보평론 4호**(2000. 8).
- 박영철 외 (2008). **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하)**. 한국경제연구원.
- 배용호 (2002). 에바다 2000일, 투쟁은 계속된다. **월간참여사회 2002년 6월호**.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 백은령 (2006). 장애인복지시설. 한국재활협회(편).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201-222. 서울: 양서원.
- 서석하 (1997). 좋은세상이 열리길 바라며. **월간 탁구 97년 1월호**, 107-119. 서울:천우기획.
- 성우제 (1999). ‘장애인 지옥’ 에바다 복지원 인권 유린 실상. **시사저널 515호**(1999. 9. 9).
- 양재진 (2008).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 행정학보**, 2008 여름호.
- 석은영 (2001). 우리나라 특수교육발전에 관한연구: 제도 및 법령변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송현자 (2000). 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상권 (2009). 장애인부모단체의 발전과 활동이 가지는 특수교육학적 함의 고찰.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여준민 (2002). 장애인 차별행위 인정하지만 구제조치는 NO!, 『**복지동향**』 43호(2002. 5). 에바다문제 해결과 장애인중 연대를 위한 제6기 전국 에바다 대학생연대회의 (2002). 에바다 투쟁, 그 승리를 위하여. **복지동향** 2002년 2월호, 12-16.
- 유동철 (2006). 장애인운동. 한국재활협회(편).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510-531. 서울: 양서원.
- 유동철 (2005). 한국장애인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1, 5-33.
- 유중해 (1978). 한국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체계적 분석. **사회과학논집**, 연세대.
- 이상춘 (2006). 편견과 차별의 극복. **특수교육의 뒀안길에서**, 77-94.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이태곤 (2011). 인권침해 물의빛은 목포농아원 폐쇄된다. **함께걸음** 2011년 1월호, 14-15.
- 임성현 (2000). 한국아동복지시설이 장애인 생활시설로 전환된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최건규 (2000). 부랑인의 재활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정책대학원.
- 최원규 (1996). 외국인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팽현모 (2000). 장애인의 삶과 역사. **에바다인권캠프자료집**, 미간행자료.
- 현삼원 (2009).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제도 한·미 비교연구-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개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Spradly, J. P.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The Ethnographic Interview]. (박종흡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 Stainback., & W. stainback. (2003).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김병하 역). 파주:한국학술정보(주).

A Study on the Background, Process and Implication of the Dispute in Ebada School for the Deaf Students

Yu, Jong Yeol

Chang Won ChunKwang Special School

Kim, Byung Ha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Ebada School dispute on special education focusing on how the dispute took place, how it developed and how it was finally solved. To achieve this goal,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s provided on its essence and truth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the then concerned people. Additional materials are also analyzed including documents and publication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leaflets, etc. and audio-visual materials such as documentaries and TV news which aired around the time of the dispute in an effort to view the matter from many comprehensive perspective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Ebada School dispute contributed much to the changes of the special education and the socie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the goal being to get to the bottom of or understand these contributions systematically. To do so, this study first traces Ebada School to its background and development, and then places an emphasis on identifying how the Ebada School dispute developed and what kind of implications it has given to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Institute of the disabled, Ebada School, Movement of disabled people

논문 접수: 2011. 11. 03 심사 시작: 2011. 11. 10 게재 확정: 2011. 12. 26